

이슈

2

2018년 4월 26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제2827호

내가 왜 떴게?

우리도 정해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정해인

●정해인 백팩 : 요즘 대세로 급부상한 정해인. '연하남의 교과서'를 보여주고 있는 정해인이 뜨면서 패션과 헤어 스타일에서도 정해인 따라하기가 유행하고 있다. 이른바 '정해인 효과'다. 한 스타일리스트가 방송에 출연해 정해인의 패션을 분석했다. 상의는 셔츠, 니트를 주로 입는 편이고 하의는 청바지나 스니커즈로 젊은 세대를 표현하고 있다고 봤다. 밋밋해 보일 수 있는 패션에는 백팩, 헤드셋 등으로 포인트를 준다. 머리는 군더더기없는 크롭컷으로 귀여움을 더했다. 저도 셔츠, 백팩, 헤드셋 다 갖고 있는데요. 이제 머리만 크롭컷으로 잘라달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کم백 두려움, 남편원원으로 녹였다



한가인

●한가인 연정훈 : 배우 한가인이 OCN 새 주말극 '미스트리스'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6년 만의 TV 복귀 심경과 남편 연정훈에 대해 언급했다. "공백이 있다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 숙제를 해결해야 하다보니 뜻하지 않게 공백이 길어졌다. 촬영장에 나설 때 두려움이 앞섰다고 털어냈다. 이런 부담을 털어준 것은 남편의 응원. 한가인은 "항상 옆에서 응원해준다. 아이도 봐준다. 힘이 되는 존재"라고 했다. 갑자기 시심이 돌네. '한가인은 한가하지 않고, 연정훈의 연정만 깊어가는구나'(최송합니다).

D라인을 보니 이번엔 아들?



유진

●유진 D라인 : 둘째를 임신한 유진이 D라인을 공개했다. 2011년 기태연과 결혼한 유진은 딸 로희를 키우고 있다. 최근 소속사를 통해 둘째 아이의 임신을 알렸으며 이후 배가 볼록해진 모습을 드러낸 것. 유진은 26일 SBS플러스 '여자플러스 시즌'에서 자신의 임신 소식을 시청자들에게 전한다. 유진의 둘째 임신에 대해 누리꾼들의 축하댓글이 쏟아지는 가운데 "로희 땀 배만 볼록했는데 이번엔 전체적으로 두리두리 후덕해진 것을 보니 로희 동생은 아들일 것"이란 날카로운 분석이 눈에 띈다.

"사라졌다" vs "잘 있다", 진실은?

●성룡 말 실종 : 영화배우 성룡의 딸이 실종상태라는 중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우쥬린이란 이름이며 17세로 알려졌다. 이때는 우쥬린이 친모와 불화를 겪다 가출을 했고 이후 캐나다인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다 최근 주변인들과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췄다는 것. 우쥬린의 SNS 역시 지난해 연말까지 멈춰져 있다. 다만 우쥬린의 친모는 "합부로 상상하지 말아 달라. 이미 딸과 전화통화를 했고 딸은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우쥬린은 성룡과 과거 내연녀인 홍콩배우 우치리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 딸이다. 성룡 아버지 고인이 많았다. 그러게 왜 ...

개봉일 100만 관객 '어벤져스3' 이면의 불편한 진실 | 다른 영화들은 어디에 걸란 말인가

국내 스크린 송두리째 내준 '멀티플렉스'

- 1 역대 일일 최다 2419개 스크린 장악
- 2 1만여회 상영·프라이머시간대 편성
- 3 심의전 예매, 규제 방법조차 없어
- 4 흥행작 때맞춰 관람료도 기습 인상

'어벤져스'가 국내 극장을 점령했다. 흥행 광풍만큼이나 논란의 불씨도 가열되고 있다. 스크린 싸움을 넘어 '폭격'에 가까운 독과점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개봉한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어벤져스3)가 첫 날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국내 극장 상영작 신기록이다. 이미 개봉 당일 오후 2시께 70만 관객을 모을 만큼 열풍을 넘어선 광풍이 몰아쳤고, 같은 날 오후 3시 현재 예매율 역시 96.4%(입장권통합전산망)를 유지하고 있다. 극장을 찾은 관객이 단 한 편의 영화만 본다는 의미다.

'어벤져스3' 위세는 주말이 시작되는 27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첫 주말동안 기록 행진이 예고된 가운데 어린이날이 겹친 5월 초 연휴까지 사실상 2주간 극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역대 최다 스크린 확보...독과점 넘어 '점령' '어벤져스3'의 흥행은 예상된 결과다. 마블 시리즈가 국내서 흥행 불패를 이어가는데, 이번 영화는 히어로 23명이 총출동해 마블 10주년에 방점을 찍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마블의 막강 팬덤은 '어벤져스3'의 높은 예매율과 스크린 싸움이, 기록행진을 일찌부터 예고했다. 하지만 영화 개봉을 전후로 극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그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관객이 몰릴 듯 들어올 것을 예상한 극장들의 '폭스'도 상당하다. 한 국영화의 앞날을 고려치 않은 '악수'라는 지적이 거센 가운데 영화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어벤져스3'는 개봉 첫 날 전국 대부분의 스크린을 싸붙이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확보한 스크린만 2419개에 달한다. 지난해 7월 '군함도'가 처음으로 일일 스크린 2000개



마블의 히어로 23명이 총출동한 '어벤져스:인피니티 워'는 25일 개봉 당일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흥행 광풍' 이면에서는 스크린 독과점, 극장의 등급심의 무시, 관람료 인상 등 다양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를 넘기면서 심각한 독과점 논란을 촉발한 사실과 비교하면 불과 1년도 안돼 또 다른 기록이 나왔다.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인 상영회차를 보면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이날 오후 7시 기본 전체 상영횟수(1만5207회) 가운데 무려 1만1330회가 '어벤져스3'에 할당됐다. 상영 시간대도 문제다. '어벤져스3'가 오전과 오후, 저녁 등 관객이 몰리는 프라이머 시간대를 싸붙이하면서 나머지 영화는 이른 아침과 심야 시간대로 밀려나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잃었다.

●극장들, 또 '등급 심의' 유명무실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심화된 관객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극장들은 '어벤져스3'를 매출 회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CGV, 롯데시네마 등 멀

티플렉스 극장제인 3사가 일제히 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관객이 몰리는 '어벤져스3' 개봉을 앞두고 벌인 기습 인상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이들 극장은 물가상승률 등을 관람료 상승 이유로 댔지만 설득력은 낮다. 오히려 영화계 안팎에서는 극장이 오랜 적자를 해소할 기회로 '어벤져스3'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벤져스3' 입장에서는 원했던 원치 않았던 관람료 인상과 독과점 논란의 '상징'으로 낙인찍힌 분위기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어벤져스3'의 마블 스튜디오는 극장 개봉작의 필수 관문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의까지 유명무실화시킨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마블이 문제라기보다는 극장제인이 문제다.

CGV는 '어벤져스3'의 등급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이맥스 스크린 등 상영관 예

매를 시작했다. 등급 심의를 받지 않고 예매를 시작한 일은 올해 2월 마블의 또 다른 영화 '블랙팬서' 이후 벌써 두 번째이다. 관객 충성도가 높은 특정 영화에 먼저 예매를 시작하면 이는 높은 예매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기록은 또 다시 극장의 상영관 배정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면서 스크린 독과점을 만든다. 술하게 반복된 악순환이 '어벤져스3'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더욱이 등급 심의 없이 예매를 시작하는 행태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은 심각성을 키운다. 영상물등급위원회 한 관계자는 25일 "예매 자체는 극장 상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영비법(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극장의 사전 예매 시작을 규제할만한 대책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유진한 기자의 카툰

haja1787@donga.com



비틀비틀 호랑나비

최경주, '강남스타일' 맞춰 말춤 출까

오늘 개막 PGA 취리히클래식서 최경주·위창수팀 소개음악 사용



최경주

위창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취리히 클래식(총상금 720달러·약 78억원)이 26일(한국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애번데일 TPC 루이지애나(파72·7341야드)에서 열린다. 지난해부터 대회 방식을 변경해 2명의 선수가 팀을 이뤄 우승 경쟁을 펼치는 방식이다. 한국 선수 중 최경주(48·SK텔레콤)는 위창수(46·테일러메이드)와 팀을 꾸렸다. 안병훈(27·CJ대한통운)은 재미교포 케빈나(35)와 호흡을 이룬다.

선수들이 경기를 출발할 때 팀을 소개하는 음악이 나온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팀 소개 음악은 선수들이 직접 결정한다. 최경주와 위창수는 사이의 '강남스타일'을 소개 음악으로 지정했다. 빠른 댄스음악으로 경쾌하게 출발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듯 하다. 전 세계를 '말춤' 열풍으로 빠뜨렸던 '강남스타일'이 흘러나올 때 골프장에서 실제로 '말춤'을 추는 사람들이 나올지 관심을 끈다.

최경주와 위창수처럼 저국 국적 가수의 음악을 선택한 선수들이 또 있다. 제이슨 테이와 라이언 러벨스(이상 호주) 팀은 호주 가수 맨 앤 워크가 부른 '다운 언더'를 소개 음악으로 했다. 그렉 찰머스과 카메론 퍼시도 같은 노래를 사용하기로 했다. '다운 언더'는 빌보드차트에서 5주간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노래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뜻하는 말이다.

저스틴 로즈(남아공)와 헨리 스텐슨(스웨덴) 팀은 영국 남성 그룹인 스펀다우 발레의 '골드'를 소개 음악으로 지정했다. 강력한 우승후보답게 정상 등극을 향한 의지를 담은 듯 하다. 안병훈-케빈나 팀은 미국 가수 마스터 피의 '메이크 팀 셰어'로 정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강원FC 신인선수, 대학시절 불법스포츠도박"

프로축구연맹 "베팅 혐의 검찰 수사" 축구인들 "불법도박 근절 교육 중요"

K리그1 강원FC 신인 선수A가 불법스포츠도박에 베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A가 대학 시절, 불법스포츠도박에 베팅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얼마 전까지 연평별 대표팀에서도 활약한 A

의 불법 베팅은 사기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가 중고매매사이트에 올린 유니폼을 산 구매자는 대금을 송금했음에도 A가 물건을 보내지 않아 사기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통장내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A의 수상한 과거 행적이 발견됐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구단 출전명단에서 제외된 A는 K리그 입단 후에는 불법스포츠도박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A가 나온 대학 출신 선수들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아마추어, 특히 학원스포츠를 중심으로 불법스포츠도박이 널리 노출돼 있다고 본다. 또 관계자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소속 학교(클럽)명이 적힌 운동복 차림으로 PC방에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어린 선수들을 오래 전부터 자주 접할 수 있다"고 혀를 찼다.

사실 프로 선수들의 아마추어 시절, 불법스포츠도박 참여는 축구가 처음이 아니다. 2015년 남자프로농구 일부 스타급 선수들이 대학 시절에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기소유예, 출전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KBL은 해당 선수들의 프로 입단 시기를 판단기준으로 잡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는 제

명되기도 했다.

축구계도 유심히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프로 연맹 규정에 따르면 K리그 선수가 불법스포츠도박에 가담하면 최대 영구제명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A의 베팅 의혹에 대해 사립이라 아마추어 총괄하는 대한축구협회도 관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한 축구인은 "그저 A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다. 학원 축구의 관례일 수도 있다. 교육이 중요하다. 어릴 때부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